

신안군 잡곡 6차산업 육성 수익성 높인다

신안군이 잡곡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신안군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전국 녹두·기장 최대 재배지역인 중부권(안좌면, 팔금면, 자은면, 암태면)을 대상으로 생산과 가공, 서비스산업, 체험·관광을 연계하는 잡곡 6차산업을 육성한다. 안좌면은 녹두와 기장, 암태면은 팔과 콩, 지도읍은 조와 수수의 주산지이다. 이번 사업은 크게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지 육성사업 ▲농업 6차산업의 핵심내용인 생산, 가공, 서비스산업과 체험·관광을 연계하는 수익모델 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녹두·기장·팥·콩 등 주산지 중부권 내년까지 18억 들여 생산·가공·체험·관광 연계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지 육성사업’은 주요 잡곡 주산지를 육성해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한 잡곡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내산 잡곡의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섬지역의 잡곡 생산단지에서 ▲잡곡 생

력(生力)기계화 ▲신제품 비교전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품목별 연구회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은 새천년대교 개통과 연계한 사업으로 중부권을 중심으로 잡곡의 생산·가공·유통·외식·체험분야 개발기술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농업 관련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사전 사업설명회를 갖고 20일까지 사업대상자를 공모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공모에서 선정된 2개 단계에 각각 8억원과 10억원을 2년 사업으로 투자하고, 생산·

가공·유통 조직을 연계시켜 소비지향적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특화된 잡곡 가공제품 개발과 브랜드화로 관광, 먹거리 등으로 연계돼 추진된다”며 “올해에는 사업대상지를 공모해 교육 및 견학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가공, 판매 등 ‘하드웨어’ 분야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 잡곡재배 면적은 ▲콩 1350ha ▲녹두 311ha ▲팥 203ha ▲기장 104ha ▲조 57ha 등이다. 이 가운데 녹두와 기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잡곡 1t이 미국 서부로 수출됐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식목일 묘목 받아가세요 함평군민들이 ‘제70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17일 함평읍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서 감나무와 철쭉묘목을 받아가고 있다. 함평군은 20일 대동면 강운리 상강마을에서 식목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함평군 제공>

“민물 유입 업체 말라 죽어” “농업용수 사용 가능한 수질”

목포·신안·무안지역 김 양식장 피해 원인 놓고 공방 어민들 “영산강 담수 때문” 사업단 “방류 사전 고지”

최근 전남 서남해에서 양식종인 김 업체(業體)가 누렇게 변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18일 목포·신안지역 김양식 어민들에 따르면 최근 김 업체가 누렇게 변하면서 말라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지난 9일 예고없는 영산강 배수갑문 개방에 따른 담수(민물) 유입이 원인이고, 목포와 신안, 무안지역 김양식장 1840여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안 압해읍 어민들은

이날 영산강사업단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알리고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배수갑문 개방을 어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등 업체 피해가 영산강 민물 방류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업단은 “공사는 하구둑 시설물 관리기준에 따라 9일 물을 흘려보내기에 앞서 사흘 전인 6일에 펌스 73건과 문자 40건을 이용해 목포, 신안,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어민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또 “영산강 유역면적은 3455km에 달해 하구둑 인근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량에 의해 수위가 증가한다. 상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배수갑문 개방을 통한 수위(水位)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업단은 “구조개선 사업에 따라 확장된 신설 배수갑문은 현재까지 개방하지 않고, 기존 하구둑 배수갑문만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며 “올 1·4분기 방류량은 7800만t인데, 2011~2014년 같은 기간 평균 방류량(1억3500만) 대비 58% 수준으로, 구조개선사업 이전에 비해 오히려 방류량이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단은 “썩은 물 수준의 저층수

(底層水)를 방류했다”는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 착공전 어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저층수 배제시설 계획이 아예 삭제됐다”면서 “영산강 수질은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4년 사후 환경영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산강 연평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4급수인 6.3 ppm으로, 농업용수 사용 가능한 수질”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관계자는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등지 600여ha 피해는 영산강 하구둑 방류와는 관련이 없다.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담수가 원인인지는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함평 ‘건강한 물 주부 서포터즈’ 발대식

6명 위촉...수질 측정·모니터링 수돗물 지킴이 활동

함평군과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함평수도관리단은 지난 16일 ‘건강한 물 주부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서포터즈는 함평군 여성단체협의회 추천을 받은 회원 가운데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주부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질측정기 사용법을 익혀 가정내 수돗물 품질과 공공장소 수질측정, 수질이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K-water와 함께 물 관련 군정

홍보활동과 지역내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범옥 함평수도관리단장은 “상수도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주부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함평 ‘蘭 대제전’ 훈격 대통령상으로 격상

‘2015 대한민국 난(蘭) 명품 대제전’ 대상 훈격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됐다. 함평군은 “한국 춘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친환경 생물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농림부장관상으로 시작한 대제전이 지난 2009년 국무총리상을 거쳐 올해 대통령상으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 최고의 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대제전은 국내외 모든 난 단체와 애란인(愛蘭人)에게 문호를 개방해 한

국 춘란 5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전국 난 유통인들의 춘란 경매와 판매도 실시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훈격 격상으로 올해 행사는 전국 애란인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난 축제, 한국 춘란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뜻 깊은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5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은 오는 28~29일 이틀간 함평군 대동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영광군 산림 바이오 매스 수집단 발대식

영광군은 지난 16일 범성리 인의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자 고용 창출을 위한 산림 바이오 매스 수집 작업단 발대식(사진)을 가졌다.



18명으로 구성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작업단은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산물(産物)수집과 청덩굴제거, 국토공원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숲가꾸기 사업지내 산물이 방치돼 산림 병해충 발생 및 산불 피해 확산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이번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작업단 발대식을 계기로 산물을 수집,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고 환경보호와 산림자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상무 Biz Tow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권장업종	면적
1층	제과점 계약완료 편의점, 보세외류 임차예정	잔여 231㎡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타워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차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비즈니스호텔 W

광주 상륙!!

(구. 백운동 국제관광호텔)

남구청이전 완료
광주제2지하철(순환선) 백운동역 확정
백운동가도로 철거후 지하화 확정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봉선동 3지구 개발 진행중
주차시설(타워)600대 확보
백운동광활성화가 기대되는 향후 투자까지 1순위 지역

8층 (1209㎡)	중식당, 한식당, 뷔페식당
7층 (1209㎡)	개인병원, 의원, 스카이라운지
6층 (1209㎡)	비즈니스 호텔
5층 (1209㎡)	비즈니스 호텔
4층 (1209㎡)	비즈니스 호텔
3층 (1209㎡)	비즈니스 호텔
2층 (1209㎡)	프랜차이즈 커피숍
1층 (2509㎡)	상가4동, 개인의원 약국, 편의점, 식당, 피부및사치실, 한의원, 판매시설, 침차전문점
지하1층 (2709㎡)	스포츠및사치,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오락실
지하2·3층 (2209㎡)	사우나, 7080라이브, 나이트클럽, 콜라텍

국제비즈니스호텔 W

(구. 백운동 국제관광호텔)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21세기 산업개발 (임대문의) 010-2112-3232